

최상위 국어 솔루션! 月刊 김대기	
<p>月刊 김대기 3월호</p>	<p>3주차 Work Book</p>



1차 과제

3월 3주차

시가문학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신석정, '아직 촛불을 켜 때가 아닙니다'

저 재를 넘어가는 저녁 해의 옅은 광선들이 섭섭해 합니다.

어머니, 아직 촛불을 켜지 말으세요.

그리고 나의 작은 명상의 새 새끼들이

지금도 저 푸른 하늘에서 날고 있지 않습니까?

이윽고 하늘이 능금처럼 붉어질 때

그 새 새끼들은 어둠과 함께 들어온다 합니다.

언덕에서는 우리의 어린 양들이 낮은 **녹색 침대**에 누워서

남은 햇빛을 즐기느라고 돌아오지 않고

조용한 호수 위에는 인제야 저녁 안개가 자욱히 내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직 촛불을 켜 때가 아닙니다.

높은 산의 고요히 명상하는 얼굴이 멀어가지 않고

머언 숲에서는 밤이 끌고 오는 그 **검은 치맛자락**이

발길에 스치는 발자욱 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기인 독을 거쳐서 들려오는 **물결 소리**도 차츰차츰 멀어갑니다.

그것은 늦은 가을부터 우리 전원(田園)을 방문하는 까마귀들이

바람을 데리고 멀리 가보린 까닭이겠습니까.

시방 어머니의 등에서는 어머니의 콧노래 섞인

자장가를 듣고 싶어하는 애기의 잠뎃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직 촛불을 켜지 말으세요.

이제야 저 숲 너머 하늘에 작은 별이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 윤동주, '별 헤는 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追憶)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憧憬)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 마디씩 불러 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佩), 경(鏡), 옥(玉),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푸랑시스 째’, ‘라이넬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 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나린 언덕 우에
내 이름자를 써 보고
흙으로 덮어 버리었습니다.

따는, 밤을 세워 우는 별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우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우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외다.

시가문학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진주관(眞珠館) 독서루(竹西樓) 오십천(五十川) 느린 물이 탁백산(太白山) 그림자를 동해(東海)로 다마 가니,
 출하리 한강(漢江)의 목막(木覓)의 다하고저. ㉠왕명(王程)이 유한(有限)하고 풍경(風景)이 못 슬미니, 유희(幽懷)
 도 하도 할사, 직수(直愁)도 돌 디 었다. 선사(仙槎)를 띄워 내어 두우(斗牛)로 향(向)하살가, 선인(仙人)을 좇으
 려 단혈(丹穴)의 머므살가. 턴근(天根)을 못내 보와 망양명(望洋亭)의 올은말이, ㉡바다 맞근 하늘이니 하늘 맞
 근 큰 머셔신고. 꺾득 노흔 고래, 뉘라셔 놀내관디, 불거니 끔거니 어즈러이 구논디고. 은산(銀山)을 것거 내여 녹
 합(六舍)의 느린는 듯, 오월(五月) 당턴(長天)의 백설(白雪)은 머스일고. 저근덧 밤이 드러 풍낭(風浪)이 덩(定)하
 거늘, 부상(扶桑) 지척(咫尺)의 명월(明月)을 기드러니, 셔광(瑞光) 천당(千丈)이 뵈는 듯 숨논고야. 주렴(珠簾)을
 고터 것고, 옥계(玉階)를 다시 쓸며, 계명성(啓明星) 듯도록 곳초 안자 브라보니, 백년화(白蓮花) 한 가지를 뉘라
 셔 보내신고. 일이 도흔 세계(世界) 늑대되 다 뵈고저. 뉴하쥬(流霞酒) 7득 부어 돌드려 무론 말이, 영웅(英雄)
 은 어디 가며, 스선(四仙)은 그 뉘러니, 아미나 만나 보아 넷 그별 못자 하니, 선산(仙山) 동해(東海)에 갈 길히
 머도 멀샤. 송근(松根)을 베여 누어 풋즙을 얼푯 드니, 솜에 한 사름이 날드려 닐은 말이, 그디를 내 모르랴. 상
 계(上界)에 진선(眞仙)이라. 황명경(黃庭經) 일즈(一字)를 었디 그릇 날거 두고, 인간(人間)의 내려와셔 우리를
 쫓오논다. 저근덧 가디 마오. 이 술 한 잔 머거 보오. 북두성

(北斗星) 기우려 창희수(滄海水) 부어 내여, 저 먹고 날 머겨늘 서너 잔 거후로니, 화풍(和風)이 습습(習習)하
 야 양익(兩腋)을 추혀 드니, 구만리(九萬里) 당공(長空)에 저기면 놀리로다. 이 술 가져다가 스희(四海)에 고로
 논화, 억만(億萬) 창생(蒼生)을 다 취(醉)케 밍근 후(後)의, 그제야 고터 만나 쏘 한 잔 하갓고야. 말 디자 학(鶴)
 을 타고 구공(九空)의 올라가니, 공둥(空中) 옥소(玉簫) 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나도 즙을 씨여 바다흠 구버보
 니, ㉢ 명월(明月)이 천산(千山) 만낙(萬落)의 아니 비첸 디 었다.

- 정철, '관동별곡'

[문제 1] 윗글의 시상 전개와 거리가 먼 것은? 180)

- ① 낮에서 밤으로 바뀜.
- ② 지상과 천상이 이어짐.
- ③ 현실과 꿈 사이를 오고감.
- ④ 여정에 따라 장소를 옮김.
- ⑤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뀜.

[문제 2] ㉠에 표현된 화자의 내면 세계를 잘 설명한 것은? 181)

- ① 풍광(風光)을 즐기기 위해 벼슬을 그만두고자 하는 도피적 심리가 엿보인다.
- ② 공인(公人)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
- ③ 공인(公人)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실적 의무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이 얽혀 있다.
- ④ 공적(公的)인 책임에 구애되지 않고 탐미적 자세로 자연에 몰입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⑤ 공인(公人)으로서 백성을 사랑해야 하는 마음과 선인(仙人)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문제 3] ㉡의 발상과 표현에 가장 가까운 것은? 182)

- ① 강 건너 언덕인데 언덕 너머 누가 살지?
- ② 집 밖에는 텃밭이요 텃밭에 나물 가꾸세.
- ③ 집 나서면 고생이나 고생 뒤엔 복이 오지.
- ④ 바람 불면 비가 오고 낙엽 지면 추워질까?
- ⑤ 산 넘으면 마을인데 마을 지나 또 산이네!

[문제 4] 다음은 달맞이 과정을 순서대로 서술한 것이다. 그 과정과 태도가 뒷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83)

- ① 바람 부는 여름날 저녁 바람이 멎자, 달을 보기 위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바닷가 언덕에 오른다.
- ② 달이 뜰 것같이 상서로운 빛이 퍼지다가 숨자, 달을 볼 수 없으리라 여겨 발길을 돌려 내려왔다.
- ③ 달이 떠올랐다. 반가운 마음에 환호하면서, 이 좋은 광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싶었다.
- ④ 달에게 그리운 임의 소식을 물어 본다. 달빛에 취해 잠시 조는데, 그리운 임이 꿈에 나타나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다가 훌쩍 떠나간다. 깜짝 놀라 잠을 깬다.
- ⑤ 바다를 내려다보니 달빛이 가득하다. 하늘의 달과 마음 속의 달이 한데 어우러져 만족감에 젖는다.

[문제 5] 문맥으로 보아 ㉢에 들어갈 시구는? 184)

- ① 실꺾티 플터이서 뵈꺾티 거러시니.
- ② 기피를 모르거니 꺾인들 엇디 알리.
- ③ 오르디 못흐거니 느려가미 고이홀가.
- ④ 백옥누(白玉樓) 남은 기동 다만 네히 서 잇고야.
- ⑤ 삼각산(三角山) 데일봉(第一峰)이 흐마면 뵈리로다.

서사문학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흘 전 감자 쪄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 울타리 옆는데 ㉡ 쌩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밭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애!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런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항차 망아지만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구…….

“그럼 혼자 하지 때루 하디?”

내가 이렇게 내배알는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 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대인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제 집계를 할끔할끔 돌아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꺾던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핵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뽀뽀이 쥐였다.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 나는 고개도 돌리려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 건 또 뭐야 싶어서 그 때에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근 삼 년째 되어 오지만, 여지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흉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 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엮어질 듯 자빠질 듯 눈독으로 험하게 달아나는 것이다.

어쩌다 동리 어른이

“너, 얼른 시집 가야지?”

하고 웃으면

“염려 마세유. 갈 때 되면 어련히 갈라구…….”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러움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열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어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지게 후러때리고 달아날지언정.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북북 쓰는 것이다.

(나)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굶실거린다.

[A]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딸리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꾸어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열일곱씩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 를 시켜 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 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 없이 기를 북북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 것이다.

(다) 눈물을 흘리고 간 그 담날 저녁 나절이었다. 나무를 한짐 잔뜩 지고 산을 내려오려니까 어디서 닭이 죽는 소리를 친다. 이거 뉘 집에서 닭을 잡나 하고 점순네 울 뒤로 돌아오다가 나는 고만 두 눈이 뚱그라졌다. 점순이가 저희 집 봉당에 홀로 걸터앉았는데. 아 이게 치마 앞에다 우리 씨암탉을 꼭 붙들어 놓고는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

요렇게 암팡스레 패 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대가리나 치면 모른다마는 아주 알도 못 낳으라고 그 불기 짝께를 주먹으로 콧코 쥐어박는 것이다.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사방을 한번 휘 돌아보고야 그제서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잡은 참 지게막대기를 들어 울타리의 중턱을 후려치며

“이놈의 계집애! 남의 닭 알 못 낳으랴구 그러니?”

하고 소리를 뽕 질렀다.

그러나 점순이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고, 그대로 의젓이 앉아서 제 닭 가지고 하듯이 또 죽어라, 죽어라 하고 패는 것이다.이걸 보면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겨냥해 가지고 미리부터 닭을 잡아 가지고 있다가 너 보란 듯이 내 앞에 쫓지르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남의 집에 뛰어들어가 계집애하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형편이 썩 불리함을 알았다. 그래 닭이 맞을 적마다 지게 막대기로 ㉠ 울타리를 후려칠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울타리를 치면 칠수록 울석이 물러앉으며 뼈대만 남기 때문이다. 허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나만 밀지는 노릇이다.

- 김유정, '동백꽃'

[문제 1] ㉠, ㉡의 '울타리'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5)

- ① ㉠은 화자와 점순네의 심리적 거리감을 상징한다.
- ② ㉠은 화자의 생활 공간이 고립되어 있음을 말한다.
- ③ ㉠과 ㉡의 역할과 의미는 동일하다.
- ④ ㉠과 ㉡는 동일한 감정을 매개하고 있다.
- ⑤ ㉠은 화자의 행동을 제약하는 심리적 금기와도 같다.

[문제 2] ㉠ '쌍이질을 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것은? 186)

- ① 토라지는 것
- ② 이죽거리는 것
- ③ 역성을 드는 것
- ④ 귀찮게 구는 것
- ⑤ 거들먹거리는 것

[문제 3] '나(화자)'가 점순의 마음을 안다고 가정할 때, ㉡ 바로 뒤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의 생각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은? 187)

- ① 내가 무관심한 척하니깐 곰같이 미련하다고 생각하겠지.
- ② 내가 전혀 못 알아듣는 척하니깐 벽창호라고 생각하겠지.
- ③ 내가 자기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깐 목석 같다고 생각하겠지.
- ④ 내가 말면서도 모르는 척하니깐 너구리처럼 의뭉스럽다고 생각하겠지.
- ⑤ 내가 자꾸 거절하니깐 겨울 다람쥐처럼 모아둔 게 많다고 생각하겠지.

[문제 4] (가)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점순'의 심정과 가장 유사한 것은? 188)

- ① 잎이 푸르러 가시던 님이
백설이 흘날려도 아니 오시네
- ② 아주까리 동백아 피지를 마라
산골의 큰애기 봄바람 난다
- ③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선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 ④ 산천의 초목은 달이 달달 변해도
우리들 먹은 마음 변치를 말자
- ⑤ 춘산에 지는 꽃이 지고 싶어 지느냐
사세가 부득하여 지는 꽃이로구나

[문제 5] (나)의 [A]를 <보기>로 바꾸었을 때 독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적절한 것은? 189)

<보 기>

그의 부모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아무 거처도 없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다. 그 때 그들을 구해 준 것은 바로 점순네였다. 점순네의 도움으로 그들은 집터를 마련할 수 있었고, 또 양식이 떨어지면 곧바로 빌려다 먹을 수 있었다. 그 은혜에 감복하여 그의 부모는 늘 고마워했고 인품으로는 그런 집이 없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어머니는 점순네의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쓸데없는 행동을 삼가라고 주의를 주었던 것이다. 더구나 나이가 열일곱이나 되는 그가 동갑인 점순과 어울려 다닌다면 동네에 나쁜 소문이 나는 것은 불을 보듯 변한 노릇이고, 또 자칫

마름집을 노하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무례한 행동으로 소작지가 떨어지고 집에서도 쫓겨날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다.

- ① 극적 긴장감을 뚜렷이 느낄 수 있다.
- ② 인물의 육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 ③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다.
- ④ 인물의 내면 심리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 ⑤ 인물이 처한 상황을 좀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문제 6] 윗글을 바탕으로 '나(화자)'가 50년 후에 자서전을 쓴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0)

- ① 점순이가 봉당에 걸터앉아 우리 집 씨암탉을 쥐어박던 일을 생각하면 내 입가에는 웃음이 번지곤 한다.
- ② 농촌 생활을 소재로 한 드라마를 볼 때마다 새빨개진 얼굴로 눈독을 달려가던 점순의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 ③ 소작인의 아들로써 감정조차 마음대로 드러낼 수 없었던 힘든 때였으나 되돌아보면 그래도 순박했던 시절로 기억되곤 한다.
- ④ 요즘 젊은이들의 대담한 감정 표현을 볼 때 점순이가 그 때 좀더 적극적이었더라면 내가 그토록 속맥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 ⑤ 마름집의 인품을 늘 칭찬하셨지만 그래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셨던 어머니의 근심 어린 얼굴이 지금도 아련하게 머릿속을 맴돌곤 한다.

서사문학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각설 이 때 한림[유연수]이 물가를 따라 점점 가며 탄식하되,

“내 당초에 혼미하고 용렬(庸劣)하여 요사한 말을 귀담아 들어 현인(賢人)을 방출하고, 위로 조상 제사를 받들지 못하고 아래로 처자의 성명을 보전치 못하고 또 신세 만 리에 떠돌고 문호(門戶) 하루 아침에 몰락하니, 이 또한 만고의 우부(愚夫)요 천지간 죄인이라. 부부의 정이 사씨에게 멀어지고 부자의 정이 인어(鱗兒)에게 단 절하니 살아 무엇하리오.”

무수히 탄식하며 악주(岳州)*에 이르러 강가에서 방황하며 어부를 만나면 문득 사씨의 소식을 탐문하되 종적이 막연하고 소식이 묘연하니 한림이 더욱 원통하고 울적함을 이기지 못하여 강촌에 가 곳곳에 묻더니 촌 사람이 말하되,

“그 때 사씨 회사정(懷沙亭)으로 향한다 하더니다.”

오래 듣다가 황망히 행하여 회사정 아래 이르니, 고목의 잎이 누렇게 떨어진 가운데 인적이 끊어지고 여러 짐승들이 좌오루 울되, 다만 눈앞에 보이는 바는 동정호(洞庭湖)*구의산(九疑山)*과 소상(瀟湘)*의 저물 무렵의 구름이라.

한림이 방황하며 탄식하더니 흥연 벽 위의 글을 보니 크게 썼으되, ‘모년 모월 모일에 사씨 정옥은 물에 빠져 죽노라.’ 하였거늘 한림이 크게 놀라 대성통곡 알,

“무죄한 부인을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슬프다. 나의 용렬함이며, 비록 후회한들 어찌 부인을 위로하 리오. 내 이미 황천에 가지 못하고 물에 몸을 던지지 못하니 이 죄를 어찌 면하리오. 슬프고 슬프다. 보인이 무슨 죄로 만경창파(萬頃蒼波)에 죽었느냐?”

굽어보며 방성대곡(放聲大哭)하니 물결이 흐느끼고 천지가 참담하더라. 이 때 해는 서산에 지고 안개는 동 정호에 일어나니 한림의 무한한 비회(悲懷)와 부인의 구천(九泉)에 사무치는 애원(哀怨)이 전후(前後)가 똑같더라.

(나) 한림이 이에 원혼을 위로하고자 하여 강촌에 내려가 술상을 갖추고 등불 밑에 앉아 제문을 지으며 슬픈 감회 가슴에 가득하여 피눈물 흘러 지필(漣筆)을 적시니 밤늦도록 지어나 한 자도 이루지 못하고 앉아 탄식만 하더니, 문득 함성 소리 진동하거늘 한림이 대경하여 창을 열고 보니, 한때 도적이 창검을 가지고 들어오며 크게 소리하여 알,

“유연수는 가지 말라.”

하거늘 한림이 크게 놀라 북쪽 창을 열고 나와 급히 도망하여 동서를 분별치 못하고 달아나니, 황급한 말을 어찌 다 기록하리오. 겨우 백여 걸음 가다가 뒤를 보니 불빛이 점점 가까워 오고 함성이 더욱 진동하니 한림이 당황하여 초목 사이로 살

기를 바라 달리더니 의관이 다 부서지더라. 급히 가매 수풀이

다하고 큰 강이 닥치니 몸에 날개 없으니 어찌 능히 달아나리오. 적당(賊黨)이 외쳐 알,

“유연수 비록 살고자 한, 팔랑개비라 하늘로 오르며 두더지라 땅으로 들라?”

하며 급히 쫓아오거늘 한림이 하늘을 보고 탄식 알,

“내 어찌 이 곳에서 죽을 줄을 알았으리오. 차라리 강계 던져 부인의 혼백을 의지하리라.”

하고 강을 향하고 달리더니, 흥연 바람결에 사람 소리 들리거늘 한림이 생각하되 이곳에 혹 어선인가 하고 황망히, 달리더니 달빛은 희미하고 적적한데 멀리 바라보니 조각배 하나 떠오르고 푸른 옷을 입은 여동(女童)이 뱃머리에 의지하여 손으로 물결을 희롱하며 낭랑한 소리를 시를 읊고 있거늘,

(……중략……)

한림이 급히 불러 알.

“여동은 인명을 구하라.”

하거늘 이 때 묘화와 부인이 배의 창문을 반쯤 열고 여동을 명하여 가로되.

“급히 배를 대어 저 상공을 구하라.”

하니 여동이 급히 배를 저어 언덕에 대니 한림이 급히 오르며 알.

“뒤에 강도들이 급히 따라오니 바삐 행하여 수중의 어육(魚肉)을 면하게 하라.”

말을 마치지 못하여 조적 등이 이미 강가에 이르러 대성 알.

“여동은 바삐 배를 대라. 그 배 안의 행인이 살인한 도적이매 계림 태수께서 우리를 보내어 급히 잡아 오라 하여 왔으니 만일 놓치면 너희 등이 그 도적과 같이 죽을 죄를 당하리라. 바삐 배를 대라.”

하니 한림이 비로소 동청(董靑)의 적당인 줄 알고 더욱 두려워하여 여동에게 알.

“나는 경성의 유한림이요, 저 놈들은 다 도적이니 급히 배를 건너 화를 면하게 하라.”

하니 여동이 적당에게 이르되.

“너희 무리 지어 죄 없는 군자를 해코자 하니 우리 어찌 군자를 구치 아니 하리오.”

모든 도적이 알.

“감히 관청의 명령을 어기니 장차 어디로 가리오.”

여동이 크게 웃고 배의 창문을 의지하고 돛대를 쳐 노래하며 돛을 달아 배를 저어가니 적당이 하릴없이 돌아가더라.

- 김만중, '사씨남정기'

* 악주, 동정호, 구의산, 소상 : 중국의 지명

[문제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1)

- ① (가) : 한림의 정서와 공간적 배경이 상응하고 있다.
- ② (가) :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림의 회한이 깊어지고 있다.
- ③ (나) : 한림의 내면 갈등이 대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④ (나) : 급박한 상황 전개가 시간적 배경과 상응하고 있다.
- ⑤ (나) : 한림의 비통한 심리에 극도의 위기감이 부가되고 있다.

[문제 2] 윗글을 읽고 사건 전개에 필연성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은? 192)

- ① 유한림은 왜 회사정에 갔을까?
- ② 유한림은 왜 물에 빠져 죽을 생각을 했을까?
- ③ 도적의 무리는 왜 퇴로도 차단하지 않고 달려들었을까?
- ④ 묘희와 부인의 배가 어떻게 해서 그 순간에 나타났을까?
- ⑤ 유한림은 촌사람들에게 사씨에 대해 어떻게 물어 보았을까?

[문제 3] (가)의 밑줄 친 부분에 담긴 사씨의 심정과 가장 가까운 것은? 193)

- ①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년 까마귀 흰 빛을 시샘할세라
청강에 기껏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 ② 문노라 먹라수야 굴원이 어찌 죽다터니
참소에 더럽힌 몸 죽어 문힐 땅이 없어
청파에 골육을 씻어 고기 뱃속 감추니라
- ③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 아니로다
밤낮으로 흐르거든 옛 물 있을소냐
사람도 물과 같도다 가고 아니 오는도다
- ④ 천만리 떠나면 길에 고운 님 여의웁고
내 마음 돌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예눗다
- ⑤ 욕심 난다 하고 몹쓸 일을 하지 마라
나는 잊어도 남이 내 모습 보느니라
한 번을 악명을 얻으면 어느 물로 씻으리

[문제 4] (나)에서 유한림이 못 쓴 '제문'을 독자가 대신 쓰려고 한다. <보기>처럼 초안을 작성하였을 때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4)

<보 기>

사월 보름날, 연수는 부인에게 조출한 음식을 차려 놓고 고하오. 부인이 죽었다니 그것이 정말이오? 아직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소.

돌이켜 보니 우리 처음 혼인했을 때가 제일 화평했던 때가 아니었던가 싶소. 그 좋았던 시절도 이제는 추억이 되고 말았구려.

내 잠시 흥미하고 용렬하여 요망한 말을 듣고 부인을 쫓아냈으니 차마 불 면목이 없소.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그러나 이제 후회한들 어찌겠소.

부인이 이제 이 세상에 없으니 내 무슨 낮으로 살겠소. 부인을 따라 죽고 싶은 심정이오. 저승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명복을 비오.

- ① 부인의 현숙한 덕행을 칭송함
- ② 부인이 쫓겨난 후의 행적을 기술함
- ③ 부인을 모함한 자에 대한 분노를 표출함
- ④ 부인과 헤어진 후의 경제 사정을 회고함
- ⑤ 부인을 죽도록 한 불합리한 제도를 비판함

[문제 5] 위 소설을 ‘우리 고전 다시 읽기 운동’의 대상 작품으로 추천하고자 한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추천의 이유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¹⁹⁵⁾

- 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전통적인 가치 인식과 함께 속도감과 박진감을 한 축으로 삼는 현대적 서사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 ②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지향해야 하는 시점에서, 중국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은 국제적 감각과 권선징악이라는 보편적 주제가 돋보인다.
- ③ 당대의 풍속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며, 유교적 가치관을 실감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대상으로 적절하다.
- ④ 독백을 통한 인물의 내면 묘사가 탁월하고, 집단의 고뇌와 갈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고전 소설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 ⑤ 쫓고 쫓기는 행위, 위기 일발의 상황, 극적인 조력자의 출현 등 활극을 연상케 하는 장면들은 요즘의 대중 소설과 견줄 만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비문학 독서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① 지도는 지표(地表) 공간에 관한 인간의 의사 소통 수단으로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활용되어 왔다. 아마도 먼 옛날에는 흙이나 모래 또는 돌 위에 간단하게 공간 정보를 나타내어 이용하였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3천 년 전의 선사인(先史人)이 남긴 암각화에 공간 정보가 그려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고구려 벽화에서는 요동성시(遼東城市) 그림이 발견되었다. 삼국 시대와 고려 시대에 군사용 혹은 행정용 지도가 제작되었다는 사실도 다양한 문헌 자료에 의하여 밝혀졌으나,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이후 제작 기술이 발달하고 그 쓰임이 다양해짐에 따라, 지도는 많은 변천을 거치며 오늘날에 이르렀다.

② 우리 나라에 현존하는 지도는 조선 시대 이후에 제작된 것이다. 조선 초기에는 조선 건국의 에너지가 각종 지도로 표현되었다. 한 예로, 1402년에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는 중국, 일본에서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당시의 세계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지도였다. 이 지도는 실제로 측량을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당대의 기존 지도를 조합하여 제작한 것으로, 신흥 국가 조선을 세계 속에서 확인하고 싶어했던 당시 사람들의 소망을 담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목판 인쇄술의 발달로 목판본 지도가 많이 제작되었는데, 지도의 크기가 대형화되었으며 지도에 표시되는 정보도 상세하고 풍부해졌다. 그런데 조선 시대에 제작된 지도들의 대부분은 관(官) 중심으로 만들어져 통치와 행정의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었다.

③ 개항 이후에는 서양의 인쇄 기술과 지도 제작 기술이 도입되었고, 일제 강점기에는 주로 일본인에 의해 서양의 정밀한 지도 제작 기술이 도입되었다. 이들은 한반도 수탈을 위해 지도를 제작하였으며, 그런 점에서 지도는 여전히 통치와 행정의 도구 역할을 했다. 광복 이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지도는 대중에게 보급될 수 있었다.

④ 근래 컴퓨터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컴퓨터 용량이 대형화됨에 따라 컴퓨터 지도가 발달하였다. 컴퓨터 지도는 수치 지도[디지털 지도]라는 점에서 기존의 종이 지도와는 크게 다르다. 수치 지도는 기존의 지도에서 사용되던 기호 체계를 사용하되, 각종 지리 정보들을 표준 코드로 분류하여 저장한 지도이다. 수치 지도는 토지 이용도, 지적도, 지하 시설물 위치도, 도로 지도, 기상도, 식생도와 ㉠같은 주제도(主題圖)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수치 지도를 활용하는 체계를 ‘지리 정보 체계[GIS]’라고 부른다.

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지도는 각 시대의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달해 왔다. 지도는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들 정보는 당대 사람들의 삶에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지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먼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나아가 한 번도 가 보지 못한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생각과 삶의 모습을 접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지도는 세계를 바라보는 ㉡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지도라는 창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갖가지 의미를 이끌어 낼 때 지도는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담은 두툼한 한 권의 책이 되는 것이다.

[문제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96)

- ① 지도는 인간의 의사 소통 수단 중의 하나이다.
- ②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도 사용 계층이 확대되었다.
- ③ 옛 지도는 주로 행정과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 ④ 과학 기술의 발달은 지도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 ⑤ 지도의 크기가 대형화되면서 다양한 주제가 발달하였다.

[문제 2]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도'의 개념을 바르게 기술한 것은? 197)

- ① 공간 정보를 기호 체계로 표현한 것이다.
- ② 공간 정보를 인쇄 매체로 구현한 것이다.
- ③ 공간 정보를 표준 코드로 체계화한 것이다.
- ④ 공간 정보를 비공간 정보와 결합한 것이다.
- ⑤ 공간 정보를 수치를 이용하여 저장한 것이다.

[문제 3]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지도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8)



<훈일강리역대국도지도>

- ① 우리 나라를 실제보다 크게 그린 것으로 보아, 실측 지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② 중국이 지도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우리 나라 사람들의 세계관을 알 수 있다.
- ③ 기존 지도를 조합해서 만들었으므로, 당시 조선 국왕의 권위를 나타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 ④ 유럽이 매우 미미하게 그려진 것은 당시 유럽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 ⑤ 아프리카가 지도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 당시 우리 나라 사람들의 지리적 인식 범위를 알 수 있다.

[문제 4]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창과 책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9)

- | <창> | <책> |
|----------|--------|
| ① 이념의 구현 | 이념의 체계 |
| ② 세계의 창조 | 세계의 재현 |
| ③ 과거의 기록 | 현재의 척도 |
| ④ 자연적 공간 | 사회적 공간 |
| ⑤ 인식의 매개 | 인식의 확대 |

[문제 5] ㉠과 동일한 의미로 쓰인 것은? 200)

- ① 여행할 때는 소화제 **같은** 것을 준비해야 해.
- ② 우리 모두는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 ③ 오늘은 비가 올 것만 **같은** 날씨다.
- ④ 유수와 **같은** 세월을 어찌 막으랴?
- ⑤ 말 **같은** 말을 해야지.

비문학 독서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인간은 욕망을 가진 존재이다. 삶이란 결국 이리저리한 욕망을 갖고 그러한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애쓰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다. 욕망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나 견해가 존재한다. 되도록 많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야말로 행복이라는 견해도 있으며, 반대로 욕망 자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만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런가 하면 ㉡ 욕망을 세속적인 것으로 보고 이것을 초월하는 것을 이상적인 삶으로 여기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견해를 취하건, 욕망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 중의 하나라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 그러나 우리가 갖는 모든 욕망이 다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욕망은, 그것을 충족시킬 수단이나 능력이 없어서 충족되지 못하기도 한다. 또 어떤 욕망은 사회적으로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충족되지 못한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욕망을 갖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욕망을 갖기도 한다.

㉣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욕망을 갖는가 하는 것과 또 어떻게 욕망을 통제하는가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단적으로 말하면 도덕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행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도덕의 문제는 결국 좋은 욕망을 갖는 문제이고 또한 욕망을 적절히 통제하는 문제로 ㉤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세상에는 ‘해야 하지만 하기 싫은’ 것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하지만 하고 싶은’ 것도 있다. 그래서 욕망의 통제가 중요한 도덕적 과제가 된다.

㉥ ㉡ 욕망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지행(知行)의 괴리’를 전제로 한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욕망에 이끌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욕망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 지행합일설의 입장에서는 지와 행 사이에는 괴리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부정 행위를 한 학생도 자기가 아는 대로 행동한 것이다. 그는 부정 행위가 나쁘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 행위를 성공시킬 수 있고, 부정 행위를 하면 점수가 좋아질 것이라는 점 등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여 부정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행동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 교육의 초점은 ‘올바로 알게’ 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면 된다.

㉧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한다.”라고 말할 때 ‘안다’의 대상은 사실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규범이나 당위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규범적 지식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 스스로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끼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 행위를 한 학생들이 자신의 행위에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성적을 올리고 싶은 욕망 때문에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정 행위를 한 학생들이 모두 ‘아는 대로 행동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삶에는 욕망에 의한 지행의 괴리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에 따라 욕망의 통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문제 1] 위 글에 이어서 전개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

- ① 욕망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 ② 욕망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 ③ 욕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④ 욕망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 ⑤ 욕망은 삶의 추진력이 될 수 있는가?

[문제 2] 글쓴이가 주목하고 있는 도덕적 문제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

- ① 아직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가 공공 시설에 비치된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경우
- ② 사람이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뻔히 알면서도 부질없이 불로장생을 꿈꾸는 경우
- ③ 태아를 유산시키는 것이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산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태아를 유산시키는 의사의 경우
- ④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고 계속 피우는 경우
- ⑤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편하게 가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모른 척하는 청년의 경우

[문제 3] ㉠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203)

- ① 꽃이 진다 하고 새들이 슬퍼 마라 / 바람에 흩날리니 꽃의 탓 아니로다 / 가노라 휘젓는 봄을 시기하여 무엇하리오.
- 송순의 시조 -
- ② 풍파(風波)에 놀란 사공이 배 팔아 말을 사니 / 구절양장(九折羊腸)이 물보다 어려워라 / 이 후(後)란 배도 말도 말고 발 갈기만 하리라.
- 장만의 시조 -
- ③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고 누웠어도 / 이 마음 얻은 것이 이 가운데 즐거워라. / 천종만사도 이 마음 옮기던가 / 금은 옥백으로 이 마음 옮기던가 / 진초의 부(富)로도 생각하면 거짓이고 / 조맹의 귀(貴)함도 생각하면 근심이라.
- 이항, '권의지로서'에서 -
- ④ 망혜를 죄어 신고 죽장을 흘짚으니 / 도화 시냇길이 방초주(芳草洲)에 이어 있다. / 잘 닭은 명경 중에 그림 같은 석병풍 / 그림자를 벗을 삼아 서하로 함께 가니 / 도원은 어디인가 무릉이 여기로다.
- 정철, '성산별곡'에서 -
- ⑤ 있으면 죽(粥)이오 없으면 굶을망정 /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뤼 말렸노라 / 내 빈천(貧賤) 싫게 여겨 손을 헤다 물러가며 / 남의 부귀 불리 여겨 손을 치다 나아오랴 / 인간 어느 일이 명(命) 밖에 생겼으리.
- 박인로, '누항사'에서 -

[문제 4] ㉠과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204)

- ① 귀납(歸納)될
- ② 귀착(歸着)될
- ③ 귀환(歸還)할
- ④ 반환(返還)될
- ⑤ 환원(還元)될

[문제 5] ㉠과 ㉡의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적절한 것은? 205)

- ① ‘옳다’의 의미에 대한 해석의 차이
- ② ‘지(知)’의 의미에 대한 해석의 차이
- ③ 도덕 교육의 목적에 대한 인식의 차이
- ④ 욕망의 선악에 대한 가치 판단의 차이
- ⑤ 판단의 자율성 여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